



정기간행물 등록 번호

www.uriseed.com

Vol. 39

등록번호 : 경1000007 등록일자 : 2009년 8월 7일 발행일자 : 2008. 4. 1. 간행 : 격월간 발행처 : 복성출판 편집처 : 복성출판 발행소 : 경기도 이천시 오가면 승곡리 696 발행처 : 우리꽃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6-82 TEL : 02-342-1281~2 FAX : 02-342-1283

테마가든 스케치 - 연재⑥

혼합식재의 새로운 재발견 혼성혼합식재의 신이론



직립형의 그라스류와 에키나, 루드베키아 등이 혼성혼합 식재 되어있다.

우리네를 통하여 필자는 혼합식재의 특징장과 혼성식재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번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는데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필자의 이런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는지 최근의 우리조경현황은 많이 바뀌고 있고 혼합식재가 현장마다의 격은 좀 다르지만 점차 새로운 트렌드로 되고 있는 듯하여 내심 뿌듯한 때가 많다. 또 ARI Garden(알파인 락 아일랜드 가든)으로 세분화 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한강역 양식가든의 기본 이론도 식물의 생태적인 상호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한 혼합과 혼성의 식재방법으로 이 또한 매우 폭넓게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

아편 후에는 필자가 여러 현장과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혼합식재 개념과 혼성식재 개념을 통합한 "혼성혼합식재"의 새로운 디어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필자가 제시했던 혼합식재의 이론은 "준비된 하나의 장소에 여러 소형 그룹으로 나누고 이 나누어진 소형장소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따로 식재 하되 이런 식재배턴을 전구적으로 반복하여 식재함으로써년부터 가을까지 항상 꽃이 있는 정원을 연출하고 그 전체적인 화색의 변화를 되도록 파스텔화 시키는 쪽으로 식재하는 개념"으로 고급 정원에 많이 적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혼성식재"는 동일한 장소

에 2종 이상의 식물을 식재하여 식물 상호간의 경쟁을 피하게 하고 대신 한 장소에서 최소 2회 이상의 개화를 유도하여 관찰기회를 높여 주는 것은 물론 어떤 특정 식물과 같이 일부 계절동안 휴면하여 땅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 주는 방향으로 많이 추천한 사례가 있고 표점남식물원의 잔디밭의 구근류(튤립, 수선, 무스카리, 크로커스 등)를 식재하여 봄만 되면 잔디밭이 온통 아름다운 구근식물로 개화를 유도하는 것과 백암정원의 1년생 식물과의 혼성 정원 등의 사례가 좋은 예이다.

그러면 혼성혼합식재는 무엇으로 정의할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우리의 식남 식재를 다양하게 연출하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겠다. 혼성혼합식재는 혼합식재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혼성식재기법을 결합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를 소그룹으로 나누어 따로 반복식재를 하고 전체 면적을 혹은 그보다 적은 면적을 2종 이상으로 혼성식재를 하여 특정 계절에 더욱 뚜렷한 테마를 연출하는 정원 연출기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우선 가장 쉬운 설명으로 혼합식재를 한 전체 면적을 분할적 개화하여 혼성으로 식한 식물과의 경쟁관계를 피하



창립초 등 일년초를 적용한 혼성혼합 식재

고 계절을 더욱 앞당겨 이른 봄부터 개화를 진행하는 볼 구근 식물들을 심는 방법이 가장 좋은 예인 것이다. 그리고 좀더 고도의 혼성혼합식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더 효과적이고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소그룹으로 혼합식재된 장소에 그보다 좀더 큰 중그룹의 식물들 같은 자리에 배치하고 그 중그룹을 또 하나의 대그룹으로 묶는 식재 방법이다. 이렇게 식재하는 방법은 아주 작은 면적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공원의 넓은 지역 조경과 그리고 정원이 조금 넓은 전원주택에 알맞고 지역의 도로공원을 사람의 보행이 빈번한 장소가 좋다.

이런 중그룹의 추천할 만한 소재로는 꽃무릇(해안성을 감인 해안란), 금난초, 숙근코스모스 노랑, 숙근코스모스 지피, 분홍, 유색발바레, 산부추, 매발톱, 아스타, 꽃잔디, 에키나, 속새, 가우라, 유색원추리, 독안꽃, 라벤더리스, 백문동, 양파니스, 맨스데몬, 꽃무릇, 숙근사부마아, 큰괭의 비단꽃, 양귀비, 핑의다리꽃, 고리꽃 등등이 좋다. 그리고 대그룹으로 전면에 좋은 혼성혼합식재의 품목으로는 단란

(2면에서 계속)

Contents

- 특집1 혼성식재의 새로운 개념과 혼성혼합식재의 신이론 1면
- 스포트라이트 2면
- 대표적 조경식물/국산, 임식, 가든용 식물 3면
- 2009년 관심집중 4.5면
- 종지표로결론 6면
- 현장특집 7.8면
- 수종, 수형, 식물의 이용/그라스 소개 10면
- 특집을 정리/COA 11면
- 독자들 12면
- 식물간의 스케치/인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13면
- view 가든 14면
- 포진 부식물 15면

2008년 관심집중 - ①

올해 새롭게 소개되어지거나 또는 기존 품종중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넘어가야 할 숙근초들을 매해 4품목씩 선정, 3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한다. 조정용 식물을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주-

시원한 느낌의 장기개화형

꼬리풀 시리즈

더운 여름엔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야생화 중의 대표적인 것중의 하나인 연보라빛의 색에 마치 꼬리처럼 생긴 꽃을 가진 식물인 긴산꼬리풀이다. 하지만 긴산꼬리풀은 너무 키가 크고 화기가 짧은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긴산꼬리풀보다 조경용 숙근식물로 관심가지나 생육 등의 많은 장점이 있고 화색과 키가 다양하고 꽃이 장기개화를 하는 꼬리풀 품종을 이번



에 소개하려고 한다. 꼬리풀류는 현상과 다년생 숙근초이 꽃이 보통은 7~8월경에 피는데 짧은 개화가 되면 그 줄기 끝에 긴 꽃차례를 만들어 달린다. 사실 꽃 한 송이의 크기는 새끼손톱보다도 작지만 꼬리처럼 늘어지는 긴 꽃차례에 정말 꼬리

화색과 키가 다양하고 꽃이 장기개화를 하는 꼬리풀 품종

처럼 달린다. 꼬리풀 품종의 경우는 연속적으로 꽃이 올라와 길게는 6~10월까지 장기개화를 한다. 품종별로 보라색(리틀블루, 블루), 연보라색(핑크, 분홍), 흰색(로즈) 등

다양한 화색을 가지고 있으며 20cm부터 80cm까지 크기까지 다양해서 적용 폭이 넓은 식물이다. 키가 커 화기가 서로 조금씩 달라 꼬리풀 만으로도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으며 혼합식재시 화기, 화색, 크기가 서로 달리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꽃대가 많아 넓은 면적에 단락을 하면 꽃방석을 깔아 놓은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빈틈없는 경관을 만들고 촘촘한 식물들이 매우 아름답게 도로가에 나 화단에 품종별로 열식을 해도 좋다.

꼬리풀은 양지를 좋아하지만 약간의 내음성이 있어 반음 지에서도 문제없이 잘 자라며 생육이 매우 강하여 병이나 해충의 의한 피해도 거의 없을 정도로 강건한 식물이다. 일

반 꼬리풀의 경우 키가 커서 여름철에 쓰러짐이 있을 수 있는데 품종들은 키가 작고 줄기부분이 단단하여 여름이후에도 안정적인 모양을 유지한다. 보통 다년생 숙근초의

넓은 면적에 군식 또는 도로가나 화단에 열식해도 좋다.

경우 다듬어 세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꼬리풀류는 해가 지나면 자랄수록 더욱 좋아져 생육이나 관리에서 큰 문제가 없는 우수한 식물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꽃이 화려한 식물들은 많이 있지만 꼬리풀처럼 품종이 많고 식물들까지 좋은 식물들은 많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꼭 있어야 할 식물인 꼬리풀이다.



봄을 맞이하는 새로운 고급 소재

후룩스 '봄' 시리즈



후룩스 봄바람

후룩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변에서 볼 수 있었던 키가 큰 식물로 인식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일전에 '대표적 조경식물' 코너에서 소개했듯이 Phlox속은 크게 꽃잔디와 후룩스로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해왔던 알밤 품종이 아닌 한송 얹고리이

후룩스 '봄' 시리즈는 새로운 봄꽃 소재로...

드 된 꽃잔디와 후룩스의 다양한 품종이 존재함을 알려드렸고 이제는 혼합식재, 암석가든, 단원식재 등 어떠한 패턴의 식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주요한 품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번에 새로 소개할 후룩스 '봄'시리즈는 바로 이 Phlox속의 새로운 품종으로 앞으로 매우 기대되는 품종이다.

후룩스 '봄바람' (Phlox divericata 'Cloud of Perfume'), 후룩스 '봄맞이' (Phlox divericata 'Chattahoochee')가 바로 후룩스 '봄'시리즈의 주인공이다. 형태적으로 보면 후룩스와 꽃잔디의 중간형으로 볼 수 있는데 꽃이 넓게 피는 것은 꽃잔디와 유사하지만 키가 약 30cm전후로 자라는 것은 후룩스에 가깝다. 후룩스 '봄바람'은 4월말경부터 마치 꽃잔디처럼 매우 조밀하게 꽃방석을 이루며 꽃이 피기 시작하여 5월까지 보라색을 피운다. 화색이 매우 고급스러워 고급조경에 알맞은 소재이며 약 15~20cm정도 자란다.

후룩스 '봄맞이'는 전분홍색의 꽃을 피우는데 5월초부터 피기 시작하여 6월까지 이어지는데 시기적으

로 봄바람에 비해 조금 늦게 피고 늦게 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같이 혼식하면 시가적으 로 더 오래 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키는 약 20~30cm 정도 자라고 꽃이 피는 형태는 후룩스에 가깝다.

봄에 꽃을 피우는 소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후룩스 '봄'시리즈는 새로운 소재로 앞으로 많이 적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보인다. 꽃잔디처럼 단독으로 군식하거나 또는 Phlox속 식물인 꽃잔디와 후룩스와 같이 혼식하

면 더욱 좋다. 즉 꽃잔디와 '봄바람', '봄맞이'를 적절히 배치하여 혼식하면 색상과 시기적으로 조화롭게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량후룩스가 6월부터 꽃이 피기

Phlox속 식물인 꽃잔디와 후룩스와 같이 혼식하면 더욱 좋다.

시작하여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으므로 개량후룩스를 식재할 때 양쪽으로 '봄맞이' 또는 '봄바람'을 식재해주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꽃을 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단독으로 가는 뿐만아니라 다른 소재와도, 태안로 관내 도로변, 제주도 농업기술원 등 국내 각지의 현장에 많이 적용되어 매우 아름답고 친숙한 장기개화형의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계속 조경에 빠질 수 있는 필수 소재로써 가우라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후룩스 봄맞이

은 출시되어 판매중이며 '봄맞이'는 올 가을 출시예정이었다. 후룩스 '봄' 시리즈는 앞으로 새로운 '봄바람'을 일으키며 여름엔 앞에 '봄맞이'를 나갈 것이다.



개화가 시작되고 있는 후룩스 봄바람

향기 좋은 장기개화형 소재

숙근사루비아



사루비아 또는 셀마리라고 불리는 꽃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진 꽃이름 중의 하나이다. 마치 우리나라 꽃마냥 느껴지기도 한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도로변이나 화단에 즐겨 사용돼 왔던터라 쉽게 우리주변에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꽃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사루비아는 모르

숙근사루비아는 화기가 길면서 일찍 꽃이 피는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사루비아는 거리에서 늘 보아왔던 빨간색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약 900여종이 넘는 정도로 다양한 품종이 있고 조경용으로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고급종이다.

'우리꽃'에서는 2007년도부터 일년생이 아닌 숙근성 사루비아를 선보이면서 숙근사루비아를 알리게 되었고 올

해 본격적으로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약 7품종 정도의 숙근사루비아를 선보이고 있는데 꽃의 형태는 대부분 꽃대에 연꽃로 배열된 있는 촛봉형을 이루고 있다. 화색은 대표적으로 블루, 자주, 하얀색을 띄는데 블루계 계통중에서 마르카스'는 키가 제일 작은 품종(30cm)으로 꽃과 잎이 매우 조밀하고 '블루'와 '비올라'는 약 40~50cm정도 자라며 꽃의 형태와 색깔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주색 계통의 '메드모자'는 꽃송이가 크며 삼각형모양을 이루고 '모자'는 화색이 매우 고급스럽다. 하얀색으로는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스노우'가 있다.

숙근사루비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화기가 길면서 일찍 꽃이 핀다는 것이다. 보통 4월중순 꽃잔디를 시작으로 꽃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뒤를 이어 5월에 아담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 많지 않다. 대부분 6월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런면에서 숙근사루비아는 품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5월 중순부터 꽃을 보기 시작하여 여름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8월부터 꽃이 피는 식물과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예로 특유의 향기가 있어 허브식물로도 이용되어질 수도 있으며 꽃이 핀때는 많은 벌들이 주위를 맴돌

한다. 화기가 길고 5월부터 꽃이 피는 장점이 있어 혼합식재시 필수적인 소재로 적용이 가능

하다. 또한 품종이 다양하여 품종별로 혼식하여도 색감이 좋아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도로변 등 대면적으로 식재해도 매우 좋은 소재이다.

생육은 대체적으로 강건하나 단지 습에 조금 약한 면이 있어 장마기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나뭇잎들이 있을 식재

품종별로 혼식하여도 좋고 도로변 등 대면적으로 식재하여도 매우 좋은 소재이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삼중재로 예방해주는 것이 좋다. 번식은 분주 또는 삽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분주는 이른 봄에 삽목은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적기이다.

숙근사루비아는 꽃이 일찍 피고 장기개화되며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는 참종군으로 조경용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뛰어난 소재이다. 현장에서 많은 적용을 기대해본다.



스노우

블루



마르카스

로즈

최고의 장기개화형 소재

가우라

'우리꽃'이 그동안 소개했던 많은 신종품종에는 장기개화형의 품종이 다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사항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꽃이 오래간다는 것은 조경을 소재로써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장기개화형 품종 중에서 가장 장기간 꽃이 피는 품종은 무엇일까, 아마도 '가우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가우라는 각 골판지, 찬란한산간 고속도로, 태안로 관내 도로변, 제주도 농업기술원 등 국내 각지의 현장에 많이 적용되어 매우 아름답고 친숙한 장기개화형의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계속 조경에 빠질 수 있는 필수 소재로써 가우라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한강에 무지개천 화단 중간에 흰색 가우라가 만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가우라는 바늘꽃과로 이색적이면서도 우리장에서도 매우 잘 맞는 식물이며 내비를 연상시키는 꽃 또한 매우 아름답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6월경부터 개화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계속하여 꽃을 볼 수 있고 날씨가 따뜻한 제주도에서는 12월까지도 꽃을 볼 수도 있다.

국내 각지의 현장에 많이 적용된 매우 아름답고 친숙한 장기개화형의 소재

그만큼 어떤 품목도 따라올 수 없는 장기개화형 소재인 것이다.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는데 토양은 너무 매마른 척박지라도 어디든 별로 가리지 않는다. 특별한 관리

는 필요없고 키를 작게 하거나 더 많은 꽃대를 받기 위해서는 1차개화가 끝난 장마여기에 키밍을 1회정도 지상 20cm중에서 해주면 더욱 좋다. 그리고 나뭇잎의 유충이 간

대면적에 넓게 군식, 혼합식재시 연속 반복해서 심는 식물로 매우 좋은

혹 잎을 잡아 먹은 경우를 제외하면 되만 충분히 잘 견뎌낸다. 환경기는 특하고 꽃줄기는 가늘어 쓰러짐이 적고 만약 쓰러진다고 해도 꽃대를 하얗게 올려 개화하면 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이나 관원의 대면적에 넓게 군식하면 효과적이고 혼합식재시 연속 반복해서 심는 포트인 식물로도 매우 좋은 소재이다. 화색도 하얀, 분홍, 빨간색이 있어 현장에 맞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꽃'이 개발한 애성종인 가우라 '베니'는 직립형의 키가 작은 화형 품종으로 동그란의 식물들은 매우 아름답고 역시 장기개화형이다. 현재 품종등록출원 준비중이며 등장이 완료되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직도 가우라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내비처럼 하얀 커리는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소재 가우라를 조경현장에 적극 추천해본다.

가우라 베니

종자프로젝트

연재 - 11

꽃양귀비를 잇는 고급종 소재 **왜성코스모스 시리즈**

꽃양귀비종자는 매년 서서히 주목을 받아오다 작년 가을을 기점으로 올 봄까지 최고 인기 품목으로 주목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판매되어 왔다. 관공서, 식물원, 골프장, 개인정원 등을 전국적으로 다양한 장소에 경관조성을 소재로 급속히 파급되어왔다. 잉글랜드로베, 캘리포니아로베, 아이슬란드로베 등 그 종류도 다양하게 선을 보였고 그 나름대로의 특색을 선보여왔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양귀비종자는 기존의 일년생종자에 비해 몇 배나 값이 나가는 고가의 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존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경관적으로 아름답다고 화려하다는 것에 있다. 이때까지는 그만큼 소재의 폭이 한정되어 있었고 이제는 양귀비만큼은 고급소재가 그 감동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봄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양귀비에 이어 그 다음을 수놓을 고급종 종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왜성코스모스 시리즈이다. 이미 잘 알려진 코스모스 '빅스타사계'를 비롯하여 왜성황화코스모스 2품종이 있다. '빅스타사계'는 발아후 약 60일 정도면 꽃을 피기 시작하는데 키는 약 1m까지 자라며 20~30cm부터 피기 시작한다. 일반 코스모스에 비해 꽃이 크고 절간이 짧아 쓰러짐이 없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왜성황화코스모스 '오렌지'는 진한 주황색으로 매우 화려하고 '데일'은 연노랑색으로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2품종 모두 30cm정도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여 약 50~60cm정도 자란다. 키가 작고

들 어디에 적응해도 좋으며 2품종 모두 단독으로 사용하더라도 좋고 혼합하여 파종해도 색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길게나 넓은 면적에서는 두 품종을 구역을 나누어 파종하여도 좋다. 특히 양귀비, 안개초 등 봄꽃이 지고 난뒤에 다음을 이어갈 소재로 매우 안성맞춤이다. 봄꽃이 지고난뒤 약 6월말경 정리한다음 즉시 파종하게 되면 8월말부터

장마기에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을 때 빠른 경관 복구를 위해서 좋은 소재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즉, 봄에는 양귀비를 늦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왜성황화코스모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마기에 침수로 인하여 하천변, 둔치 등 식재지가 피해를 보았을때 빠른 경관 복구를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종의 하나이다.

새로운 일년생 고급종자 왜성코스모스 시리즈는 양귀비 종자 시리즈에 이은 또 한번 아름다운 경관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다. 



코스모스 빅스타 사계

키가 작고 절간이 짧아 쓰러짐이 없고 식물체의 품이 매우 단정한 특성...

절간이 짧아 쓰러짐이 없고 식물체의 품이 매우 단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하천, 골프장 진입로

특히 제 10-0807285호

벽면녹화의 새이름 **벽화수**

벽면, 콘크리트사면, 방음벽, 옥상, 전신주 등 인공구조물을 피복하는 새로운 이름



제조사  **우리꽃** 사명  **Whye Wellbeing Life**
문의 02)3412-1281~2



현장히트상품종



개량후룩스

개량후룩스는 가장 화려한 장기개화형 소재입니다.

개량후룩스는 6월말부터 개화를 시작하여 시리가 내리기 전인 11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장기개화형 식물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품목도 따라올 수 없는 화려한 꽃을 여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개량후룩스는 생육이 강건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기존의 일반 후룩스는 여름이 되면 앞에 흰가루병이 쉽게 발생하여 생육이 불량해지며 꽃이 빨리 지고 화색이 얼어져 관상가치가 나빠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량후룩스는 꽃송이가 크고 줄기가 곧고 강하여 여름철 바람과 습기에 강하고 병충해에도 매우 강합니다. 우리 나라기후에 적합한 식물이며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우수한 품목입니다.

다양한 화색과 품종을 자랑합니다.

화색은 흰색, 분홍, 진분홍, 보라, 빨강, 짙은 빨강 등 매우 다양하며 현재 우리꽃에서는 20여종의 다양한 품종들을 철저히 분리하여 개량후룩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개량후룩스는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왜성황화코스모스 오렌지



왜성황화코스모스 레몬



스텔라원추리

스텔라원추리는 키가 작은 최상의 연중 개화종입니다.

키가 약 30~50cm정도로 기존의 원추리보다 작고 대부분의 원추리류가 여름에 한차례만 개화를 하는데 비해 스텔라원추리는 5월 중순부터 개화를 하여 10월초까지 연속적으로 개화를 하는 품종입니다. 노랑색의 꽃은 매우 탐스럽고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꽃대가 낮고 장기개화를 하여 그 쓰임새가 날로 높아지는 인기 품목입니다.

건습지를 가리지 않으며 양지,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전천후 식물입니다.

생육이 강한 식물인 말잔치 스텔라원추리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잘 자라는 식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스텔라원추리는 건습에 매우 강하고 극음지를 제외한 양지, 반음지에서 모두 잘 자라기 때문에 그 활용 폭이 매우 넓은 전천후 식물입니다.

우리정서에 잘 맞고 친근한 식물입니다.

원추리는 주위에 도로면이나 화단 등에 많이 심겨져 있고 예전에 식용으로 많이 먹었던 우리가 흔하게 접했던 식물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많은 품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꽃에서는 원추리류의 좋은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텔라원추리는 건,습지 및 음양지를 가리지 않는 최고의 소재입니다.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12월호 - 22

수변의 새롭고 다양한 표현 “호스타”



로 소개함 하여 사람들이 단순히 음지에에만 심는 식물로만 알고 있다. 물론 음지에 더함 나열이 좋고 주로 쓰이는 곳이 도상의 수목하부 등 음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호스타류가 음지를 소재이자 수변에 매우 좋은 수변식물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스타류의 식물들이 왜 수변에 좋은지 또 왜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물가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보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물 또는 모래땅과 같은 건조지에 사는 식물이 있고 또 하나는 습지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 그래서 물가에 산다고 하여 모두 습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계곡, 강, 연못, 습지, 저수지 등 수변지역도 다양한 색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수변에 사는 식물들은 보통 생육이 건강한 식물들이 대부분이고 물이 적 필요인 식물들을 제외하고는 건조한지나 습한지 모두 잘 자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조에 강하고 음지에도 강한 호스타가 수변에 잘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통 호스타는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더욱 빨리 자란다. 따라서 계류나 연못수변에 심을 경우 빨리 적응을 하며 자라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관을 만들 수 있다. 호스타는 잎의 크기, 무늬, 길이, 질감 등이 서로 다른 많은 품종들이 있어 수변의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계곡, 강, 연못, 습지, 저수지 등 수변지역도 다양한 색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수변에 사는 식물들은 보통 생육이 건강한 식물들이 대부분이고 물이 적 필요인 식물들을 제외하고는 건조한지나 습한지 모두 잘 자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조에 강하고 음지에도 강한 호스타가 수변에 잘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통 호스타는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더욱 빨리 자란다. 따라서 계류나 연못수변에 심을 경우 빨리 적응을 하며 자라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관을 만들 수 있다. 호스타는 잎의 크기, 무늬, 길이, 질감 등이 서로 다른 많은 품종들이 있어 수변의

호스타는 음지뿐만 아니라 수변의 대표적인 식물

과와 연못을 만들 수 있기에 수변식물들의 품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 대표적인 식물이 호스타이다.

호스타류의 식물들은 우리나라 자연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대표적인 식물군이다. 그런데 소개할 때 대표적인 음지식물

화분과 사초와 식물로 대표되는 Grass Scape 12월호 - 17

우리나라에는 Calamagrostis속으로 산새들, 백산새들, 심새들 등 자생하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무늬새그라스(Calamagrostis acutiflora 'Overlark')는 Calamagrostis속으로 아름다운 잎의 무늬와 여들의 이삭이 정돈된 그라스종류이다.

무늬새그라스는 단독식재 외에도 군식에 좋은 무늬새

있는 적이 없고 캄캄한 곳까지 유지하며 전체적인 초형도 흐트러지지 않고 역상각형으로 서있는 모습이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하얀색 줄무늬가 잎의 테두리에 있어 무늬가 매우 아름다우며 본지에서 여러번 소개한 무늬새그라스인 무늬새, 여새 모노리드 등의 우량 품종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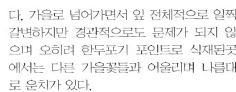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단독 식재나 포인트 식재로 적용하면 좋고 그 외에 군식에도 좋은 무늬새이다. 그리고 보통 여새 등의 그

6~7월경 이삭은 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라스류가 가을에 이삭이 아름다운 정취를 담아내는데 비해 무늬새그라스는 그에 앞서 6~7월경 이삭이 아름답게 만발하여 화려한 색의 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잎의 무늬와 이삭이 아름다운

“무늬새그라스”



다. 가을로 넘어가면서 잎 전체적으로 일찍 갈변하지만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두포기 포인트로 식재할 때는 다른 가을꽃들과 어울리며 나름대로 윤치가 있다.

키는 50~60cm정도 자라 여새류 등 대형 그라스류에 비해 키가 작아 앞 라인에 식재할 수 있고 그라스원을 조성할때에도 초장이 중간형으로 지난호에 소개한 물리니와 함께 대형화와 소형종의 중간형태의 부속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이다. 또한 암석가든 조성시에도 한두포기 포인트 식물로 식재해주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 준다.

무늬새그라스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며 수명이 이쁘고 꽃이 피었을때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꽃이 피지 않아도 잎과 포기형태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그라스로 그 쓰임새가 넓어질 수 있는 그라스 품종이다.



서로 다른 많은 품종들이 있어 수변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

잘 어울리게 배치한다면 호스타류는 수변의 훌륭한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양방의 갈초와 같이 반드시 수변에 적용해야만 소재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꽃은 보통 7~8월경 나팔모양으로 피는데 보라색, 연분홍, 흰색 등 색이 밝고 아름답다. 거기에 은은한 향기까지 더해져 더욱 좋다. 다른 수변식물과

무늬새 시리즈

업그레이드 고급스케 12월호 - 23

소관목의 새로운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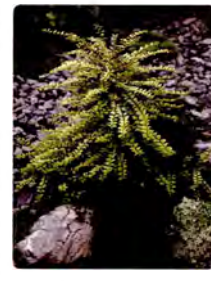
“무늬로니세라”



조경현장에서는 교목, 관목, 수근지피식물 등이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 되어지는데 요즘들어 키가 작고 아름다운 관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철쭉이나 화

양목 등 일반적으 로 많이 쓰이는 식물 을 제외하고는 그 종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요즘엔사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졌던 삼색조판, 황금조판이 새로운 소관목류로 큰 인기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소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로니세라는 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식물이라고 하겠다.

로니세라는 외국에서 생육되던 토파이어로 많이 사용하는 품종이다. 로니세라는 원래 인도의 하변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한 무늬로니세라(Lonicera



락탄 또는 포인트 식물로 독립적으로 쓰여도 좋고 군식하여도 좋다.

nitida 'Variegata')는 인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식물이다. 인도가 열대식물이고 로니세라는 잎과 키가 모두 작은 관목인데 무늬로니세라는 땅으로 가지들이 향하는 좀 독특한 형태로 자라는 식물이다. 잎이 조밀하고 작아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며 줄기가 자라는 형태가 일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름구름한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아늑적인

독자 Q&A

다년생 지피식물의 병해충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년생 식물들은 대부분 생육이 강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년생식물들은 병해충에도 매우 강하고 관리할 땐 할 때 특별한 어려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에 장마로 인한 고온다습한 기후가 연속되어 병해충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일년 중 장마기에 관리에 신경을 쓰면 다년생의 경우는 크게 병해충으로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장마 전, 후로 살충, 살균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으며 특히 한두리류의 식물들은 진딧물의 피해가 있어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법면시리즈를 파종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먼저 종자를 파종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아를 시키는 것입니다. 배가 적당할 때 발아는 자연발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시기에는 관수를 해주어 발아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 이런 식물들은 우리나라의 여름 장마기에 너무 많이 자라 스스로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겨울철에 월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용으로 식재하는 식물들은 생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월동이 가능한지 체크하여야 하고 (예를 들어 리벤다, 로즈마리는 중부권에서는 월동이 어려움) 너무 자랐을 때 절기가 정점을 해주어야 생육이 양호합니다. 우리나라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삼베레나, 산베레, 베조랑, 봄베, 박베, 중베 등이 생육이 강건하고 관리의 문제가 없어 좋고 숙근사루비아, 모나디, 봄베루, 페퍼, 에키나 등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어 정원에 심기 좋은 허브입니다.

발아 된 후에는 잡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째는 아직 파종한 식물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잡초들을 적절히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바랭이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그 이외의 잎이 넓은 관엽식물들은 일 년에 2~3회 정도 손제초를 하면 됩니다. 종자를 파종하고 1년만 제초관리를 잘 하면 그 이후에는 식물들이 자리를 잡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종지의 여건에 따라 생육이 좋지 않으면 적절하게 복합비료 등으로 시비를 해주어야 하고 1차만 개 주 여름으로 넘어 오면서 약간 지지분해될 수 있는 데 이때에는 위에서 약 20cm가량 컷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너무 바짝 잘라주면 밑에서 올라오는 다음 개화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길이로 컷팅해 주어야 합니다.

허브를 정원에 많이 심었는데 잘 죽습니다. 왜 그런가요? 또 정원에 심어서 좋은 허브는 있나요?

허브라 함은 원래 뿌리, 줄기, 꽃을 가지고 약이나 향료로 쓸 수 있는 식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에게 알려진 허브는 잎이나 줄기에서 강하게 자극하는 향이 많이 나는 식물로 알고 있습니

다. 허브를 동시에 주어서 락탄에 들어 갈 어울리고 포인트 식물로 독립적으로 쓰여도 좋다. 그리고 무늬가 많은 색을 띠고 있어 경계를 주기 위한 라인식물로도 좋으며 또한 현장에서 석죽이나 조경석을 쌓는 곳에 화양목, 철쭉과 식재하지 말고 무늬로니세라를 적절히 심어주면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름답고 번영함이 자라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무늬가 밝은 색을 띠고 있어 라인식물로도 좋으며 석죽이나 조경석을 쌓는 곳에 적절히 심어주면 큰 효과를...

발달하여 겨울에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무늬로니세라는 보통 양지에서 잘 자라지만 인간의 발을 지는 문제없이 잘 자란다.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하며 토양이 아주 비옥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 다만 장마기에 진딧물이 생길 수 있어 그 점만 유의한다면 생육에는 문제가 없는 우수한 품종이다.

무늬로니세라에 있어 황금색을 띠는 로니세라 '황금' (Lonicera nitida 'Golden Burgin')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무늬로니세라와 같이 적절하게 배치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새로운 무늬로니세라 품종으로 적극 추천 하고자 한다.



햇볕이 잘 드는 개인정원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싶다면 추천할 만한 식물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꽃'에서는 아름다운 정원을 많이 조성해 해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주변경관과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성하려는 한도가 있습니다. 먼저 초보자가 정원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육에 문제가 없는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꽃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오래 피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장기계획을 하는 가우라, 숙근코스모스, 후룩스, 삼색잔디매왕이, 고리플, 스타라원후리, 숙근사루비아, 아스타가 좋고 잎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있는 알키미라, 아구라, 호스타류, 봄베루, 조피루비 등이 초보자들에게 심기에 좋은 식물들입니다. 위의 식물들을 잘 적용하면 처음 만드는 정원이라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집 대형식물의 적용

우리조경현장에는 대형의 초본식물이 거의 볼 수 없다. 적절한 활용이 가능하면 다양한 조경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대형의 식물들의 적용이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아직은 대형초본식물 소재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소개되었던 분종을 중심으로 양지, 음지, 수변, 수중 등 각각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무늬큰고랭이



염식을 해도 좋다. 또한 독이 무너진 염려가 있는 연못이나 개울의 물 가장자리에 심으면 조밀한 줄기와 긴 뿌리가 토양유실을 방지할 수도 있다.

대형의 수중식물로 키는 1.8~2.5m까지 자란다. 잎줄기에 아름다운 세로의 하얀 무늬를 형성하고 물속에서 조밀한 포기를 형성하며 전체적인 초형이 아름다운 고급소재이다. 조경에의 이용은 연못의 포인트식물로 적용하거나 키가 크고 조밀하여 연못의 미관상 가지고 싶은 부위 주변에

물아카시아



물위를 기어다니며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인 물아카시아는 생장이 빠른데 잎면적에 약 15~20cm를 자란다. 웬만한 연못 전면을 쉽게 피복할 수 있다. 일부 구간의 수변에 아주 작은 양을 식재함으로써 모든 조경노력이 끝나게 되고 가을이 되면 부레옥잠과 같이 물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줄기만 남기면 제거가 완료되는 매우 경제적인 소재이다.

대형평의다리



평의다리는 자생종으로는 금평의다리, 은평의다리 등이 있는데 이들도 매우 큰 형태의 식물이지만 화색이 다양한 외국 품종 중에는 아름답다 더 큰 대형의 평의다리 품종이 있다. 아직 국내에는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약 2m 까지 자라 매우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식물이다. 포인트식물로도 좋고 특히 음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양지에 식재된 식물 사이사이에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매우 좋다.

칸나 파초

칸나 파초는 칸나 보다는 배너나 무에 가까운 모습을 가진 키가 3m이상 자라는 시원한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하는 초대형 식물이다. 칸나는 원래 수변식물이므로 칸나 파초도 물가에 심는 것이 생육에 가장 좋지만 일반 도로가에 심어도 잘 자란다.

골프장의 폰드주변에 독립수로 심어 한여름을 시원하게 느끼게 할 수 있고 클럽하우스의 창가쪽으로 심어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식물원 등의 이색적인 식물수를 만들때 이용하면 좋다.



왕머위

일반적으로 머위는 약 50cm정도까지 자라지만 왕머위는 키가 약150cm정도까지 자라며 잎의 직경도 60~100cm에 달한다. 주로 진흙의 수면에서 생육이 좋으며 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해 습가정자리 늘 같은 곳에서 생육이 왕성하다. 번식은 주로 지하경을 뿜어 포기를 키워내다 뿌리가 성장한다. 큰 연못의 가장자리에 숲 속에 붙여 군식하면 좋다.



왕삭새

삭새는 지하경의 생장이 좋아 빨리 성장하고 생대적 특성상 그늘지어진 선초도가 높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 군식을 해도 좋다. 자연형 연못가 등 수변식재에 좋은데 특히 키가 1.5m이상 자라는 왕삭새는 대면적의 단일군락으로도 보기 좋으며 다른 식물군들과 잘 어울리며 특별한 수변경관을 창출해낸다.



무늬억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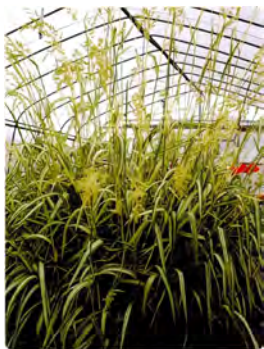


올려 골프장의 그린주변, 수변 주변 등지에 적용하면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무늬억새는 잎의 무늬가 매우 좋고 줄감이 뛰어난 고급소재이다. 경관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매력적인 억새이다. 독립수로 이용하거나 군락으로 조성하여도 좋고 초형이 좋아 그라스원을 조성할때에도 주 소재로서 안정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무늬억새에서 녹색과 물, 건물 등과 잘 어

대형무늬갈뚝

대형무늬갈뚝은 대군락을 이루거나 포인트식물로 이용가능하고 잎면적 또는 수면에도 환용하기에 좋아 가장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식물이다. 키가 약 180~200cm까지 자라며 잎이 불부터 가을까지 깨끗하므로 골프장의 연못에 하얀 라인식물로 적용하거나 생육이 빠르고 지하경을 뿜어 성장하므로 양지 또는 기타하천식물 대용으로 큰 군락을 이루어 심으면 토양유실방지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식물관리 스케치

연재 - 4

◎ 세덤

우리는 흔히 세덤류는 쉽게 기를 수 있는 식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좀 과장된 표현을 쓰지만 그만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이 세덤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쉽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세덤류이다. 이것은 현장에서 세덤 식재지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육상식물의 증가로 세덤류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그 적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덤류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유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건조에 매우 강하지만 반면에 습에 아주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여름 장마기에 대부분 녹아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하면 고사하거나 봄, 가을

로는 생육이 좋다가 여름 장마기에 생육이 저조해지는 현상을 매년 반복하게 된다.(사진 1,2) 그렇기 때문에 세덤류를 식재하는 곳은 반드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필수요소이다. 일단 장마기에 녹아 내리면 주변으로 삼분체를 살포해주고 난 뒤 고사된 잎을 제거해



사진1

사진2

주어 생육이 가능하게 한 뒤에 추후에 배수분재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 상록성 식물 커팅

상록성 식물들은 지역과 식재지의 조건에 따라서 겨울을 난뒤의 모습이 다르다. 기온이 따뜻하면 남부지방이나 중부권이라도 바람막이가 있는 곳에 식재된 상록성 식물들은 봄이 되면서 온전하게 되돌아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잎의 일부가 갈변되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3) 특히 상록성의 그라스류에서 그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봄이 되면서 아래부분을 일부 남기고 지지부한 잎을 커팅해주는 것이 유리하다(사진4,5). 그랬을때 처음에는 황량해 보이지만 얼마



사진3



사진4



사진5

◎ 삼색조팝, 황금조팝



사진6

대부분의 식물들은 봄에 신초가 올라올때 매우 보기가 좋다. 그 중에서도 삼색조팝이 봄을 알, 황금조팝의 노란 잎 새순은 매우 아름답고 색다른 느낌을 준다(사진7). 삼색, 황금조팝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한다면 적절하게 가지잡 커팅을 해주는것이 좋다. 시기적으로는 늦가을 이후 잎이 떨어진 후에 가지가 원하는 크기 및 잎 부위를 커팅해주면 봄에 아주 깔끔한 형태를 유지하며 자라게 되고 전년도에 커팅해 주는것을 놓쳤다면 이른 봄에 해주는것도 무방하다. 병해충으로는 여름에 진딧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방제해주어야 하고 흔치는 않지만 삼색조팝 식재지 주변에서 나방류가 옮겨와 식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병해 방제가 필요하다. 🍎

야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연재 - 3

생육이 강건하고 정원으로 안성맞춤

“붓꽃”

붓꽃을 이용한 민간요법

붓꽃의 종자를 마린재(馬蔞子), 꽃을 마린해(馬蔞花), 뿌리를 마린근(馬蔞根)이라 하여 약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등심붓꽃은 약용하지 않는다.

마린근(馬蔞根)

생약명으로 붓꽃의 뿌리줄기는 마린근(馬蔞根)이라하며 청혈, 해독작용, 해열, 소화불량, 치질, 타박상, 황달, 이질, 설사를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 늦여름에 잎이 누렇게 말라 갈 즙을 뿌리줄기를 채취하여 잘 말린 후 종이 봉지에 넣어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한다. 이것을 10~15g 씩 물 0.5 리터에 달여 1일 3회로 나누어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단, 백설병을 일으키는 효력이 없어진다.

마린해(馬蔞花)

8~9월 과실의 성숙기에 과수를 끊어 내어 햇볕에 말려 종자만을 골라 다시 햇볕에 말린다. 그것을 마린재(馬蔞子) 혹은 여실이라 하여 내복용으로 달이거나 의용으로 짓뭉쳐서 환부에 붙이면 지혈제, 파상풍, 배탈, 춘곤, 편도선염, 백열해금성 기도감염증, 천식등에 효능이 있다.

마린해(馬蔞花)

4월 개화 후 잎은 날을 가려 따서 햇볕에 말리거나 또는 그늘에 말린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이 묻지 않게 하고 곱창이를 방지하여 건조해서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한다. 그것을 약 3~6g 달여서 복용한다. 인후염, 지혈의 효능이 있으며 소변을 잘보게 하여 임질 증상에 효력을 나타낸다.



타래붓꽃

흰붓꽃



부채붓꽃

제비붓꽃

붓꽃의 서양이름은 아이리스 '무지개'란 뜻인데 이 꽃의 꽃말도 비 온 뒤에 보는 무지개처럼 '기쁜 소식'이다. 여신 주노의 예의 바른 신녀 아이리스는 주피터가 진요하게 사랑을 요구하자 자신의 주연을 내뱉을 수 없어 무지개로 변하여 주노에 대한 신의를 지켰다는 전설이 있다. 그 때로 인해 붓꽃은 축복과 밝기가 내린 후 혹은 이런 아첨 이슬을 마시고 심심하게 피어오를 때가 가장 아름답기도 하다.

붓꽃은 여러해살이풀로 많은 종류가 있는데 한국에 각시붓꽃, 타래붓꽃, 제비붓꽃, 부채붓꽃, 흰붓꽃 등이 있다. 그중 타래붓꽃은 뿌리줄기가 옆으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서 잎의 모양이 길이 약40cm, 너비5mm 정도로 뜰에서 생장한다. 타래붓꽃이란 이름은 잎의 모양이 뜰에서 붙어있어 이름이기도 하다. 제비붓꽃은 꽃이 크고 생육이 강건한 습지의 아름다운 꽃이고 부채붓꽃은 꽃보다는 부채살같이 잎의 광상치가기 때문이다. 흰붓꽃은 순이의 하얀색 꽃이 너무 아름답다 붓꽃이다. 그리고 모두 가정의 정원을으로 함께 기를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

VIEW 가이드 연재 - 2

지금 우리는 경제와 문화의 발전으로 더욱 더 자연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국내에서도 조경에 관련된 박람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번호에서는 국내(박람회)를 다뤄보고 한다. 해외박람회 못지않은 발전을 이루어 가는 기존 박람회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기대하는 신생박람회에 대해 소개한다. - 편집자주 -

■ 박람회편-②

● 2008 대한민국 조경 * 박람회 (Korea Landscape * Expo2008)

- 전시장소 : 삼성동 코엑스(COEX) 1층 대평양관
- 전시기간 : 2008년 5월 29일(월)~6월 2일(월)
-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6시
- 주 최 : 한국조경사회 · 환경조경발전재단 · 리드엑스포
- 후 원 : 국토해양부 · 환경부 · 산림청(예정)
- 전시품목 : 정원용품, 원예종묘, 온실자재, 실내외 조경 자재, 조경식재 공원식물
- 공식사이트 : <http://jokyoungexpo.co.kr>

도시녹화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참관객 대이터 시스템, 가이드북 제작 및 인터넷수록 등의 시도로 과거와 다른 조경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또한 한국조경사회와 조경관련 협회,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방송3사뿐만 아니라 주요 케이블채널, 주요 일간지, 전문지 등의 홍보를 펼쳐 전시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꽃'은 신개념 인공구조물 녹화자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 2008 산림박람회("생명의 숲 산림")

- 전시장소 : 경남수목원(진주시 이반성면 대전리 일원)
- 전시기간 : 2008년 5월 27일(화)~6월 1일(일)
- 관람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전시규모 : 56ha, 200부스 이상, 33기관협회, 75업체, 152부스 유치
- 주 최 : 경상남도
- 후 원 :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 공식사이트 : www.forestexpo.co.kr

산림박람회가 열리는 경남수목원은 서부경남의 중심권인 진주시 이반성면 대전리 일원의 17만평에 전묘수목원, 화목원, 열대식물원, 무궁화공원 등 우리나라 온대남부지역의 수목위주로 국내, 외수를 1,700여종, 10만여본이 수직, 식재되어 있다.

이번 산림박람회 개최를 통해 산림과 관련된 콘텐츠를 총망라한 친환경 임산품의 생산과 활용 등을 전시·홍보하여 산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수목원 및 서부권 관광지 등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제2회 동아조경박람회

- 전시장소 : SETEC(1,2,3관, 옥외전시장) 지하3호선 학여울역 앞
- 전시기간 : 2008년 4월 17일(목)~4월 21일(월)
-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6시, 토,일요일 통일
- 전시규모 : 270여 업체
- 주 최 : 동아건설
- 후 원 : (사)한국조경관협회,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화원협회, (사)한국회생생산지협회, 원예연구소, 월간전원속의 내집,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월간 전원주택저널, 월간 조경시공, 월간 환경과조경, 나무신문, 산림환경신문, 조경세계
- 전시품목 : 조경자재 및 시설물, 실내외 조경, 옥상조경, 정원자재용품, 원예자재 및 용품, 생태환경 관련자재, 생태환경 용품, 수경식물, 경관조경, 그린인테리어
- 공식사이트 : www.dong-a-fairs.co.kr



이번 박람회는 박람회의 전문기업인 동아건설의 주최로 제2회를 맞이하게 된다. 다양한 후원업체 및 협회의 참여와 대대적인 홍보로 참가업체의 제품홍보의 장소가 되도록 함은 물론, 참가업체와 실수요자의 협력을 기대한다.

● LANDEX2008(친환경 주거문화와의 만남)

- 전시장소 : 경기도 고양시 KINTEX 3hall
- 전시기간 : 2008년 10월 2일(목)~10월 5일(일)
-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6시
- 전시규모 : 10,773㎡
- 주 최 : YTN
- 후 원 :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자재협회, 한국실내조경협회, 환경재단, 한국공기청정협회, 원안환경과조경
- 전시품목 : 친환경 조경식재 / 재료 / 시설물 및 설계 / 시공부문 친환경 공동주택 부문, 친환경 Eco-city 부문, 친환경 정책홍보 부문, 친환경 상품 부문, 친환경 건축자재 부문
- 공식사이트 : www.landex.co.kr



본 박람회는 21세기 친환경 개발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006년 제1회 LANDEX 개최를 첫해로 지난 2년간 다양한 자연 친화적 조경을 통해 인간과 자연,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진상을 선보였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친환경 주거문화와의 만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은 LANDEX 2008은 친환경 공동주택, 친환경 조경, 친환경 건축자재, 친환경 생태도시, 친환경 생활용품을 아우르는 종합 주거환경 박람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농업적 경관, 체험, 휴식이 있는 곳

양귀비 식물원

포천 부식물원

"이 코너는 경관식물원을 표방하는 포천부식물원의 특별 주요 경관과 식물원 내의 이벤트 및 진행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2008년 개장을 앞두고....



바야흐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스치는 바람이 포근하게 느껴진다. 지난해 심어 놓은 들꽃의 싹을맞는 어린 잎이 저마다 키재기를 하듯 솟아오르고 있다. 식물원에서도 4월 18일 오후를 맞이하는 코 뜰 사이 없이 이룬다.

2008년 식물원 개장을 앞두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본다.

첫째로 농업적 경관 식물원의 한국적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어느덧 한국에서도 농촌경관에 도시민에게는 매력적인 휴식공간과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 그간 대수롭지 않게 보아왔던 해바라기, 메밀꽃이 관광자원화 되어 농촌의 소득증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야생화 시장의 선두주자인 '우리꽃'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경관 식물원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물원의 경영 특성상 첫째도 경관, 둘째도 경관, 셋째도 경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경관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경관을 상품으로 미리 입장료를 지불하고 만 곳까지 사교와 경비를 들여 입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면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를 입장객의 눈높이로 고민하고 노력 할 것이다.

둘째로 수치 형자름 이루고자 한다.

시업으로서 이익의 실현은 계속 기업으로 발전하는 생존조건이다. 초기 투자가 많은 식물원 경영에서 투자자들은 포탄한 이익을 조기에 내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수치

측자는 어찌어찌 하겠다. 경제 법칙에 맞게 비용은 최소로 하고 매출은 극대화해야 하겠다. 그렇다고 미래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까지 비용을 아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매출 증대를 위해 봄에는 들꽃, 양귀비축제로 차별화하고 여름에는 생태체험, 가을에는 국화, 익새 축제를 거행하는 일을 쉼터를 이용하여 연중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매출증대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셋째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려 한다.

우리 식물원을 중심으로 5km의 국도(전 47면 국도)를 가드웨이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나무 중심의 가드웨이를 보다 풍 중심의 가드웨이를 만든다는 앞장서서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에 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 5월 오후 할 예정인 잔 리조트와 산사원으로 유명한 산사원이 각각 2km 인근에 떨어져 있어 서로 원-원-원으로 협력 관계가 유지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또한 국립수목원, 평강식물원, 허브아일랜드, 유 아리리스 가드와 함께 포천이 생태관광의 메카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포천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생각하며 식물원을 운영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기업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중요한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식물



을 다루고 있는 '우리꽃'은 많은 투자와 비용이 들어가는 식물원이지만 기존 식물원과는 차별화한 정말 다양한 식물과 경관을 보여줌으로써 도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자 식물원 경영에 참여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꽃'이 일부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물원 직원들이 행복하게 자기 정원을 가꾸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식물원을 아끼고가꾸어 입장객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도록 계속 힘을 쏟을 나갈 것이다.



1. 2008년 개장을 앞두고 새단장에 여념이 없다.
2. 잔디광장에 아름답게 핀 수선
3. 봄 일찍 꽃인사를 하고 있는 보라색 크로커스
4. 새순을 올리고 있는 튼실히
5. 더 좋은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 손질을 하고 있는 무지개원
6. 계획주변으로 다양한 식물들이 봄을 맞이 하기 위해 고사리손을 내밀고 있다.

포천 부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441
안 내 : 031) 534-1136
서울사무소 : 02) 3412-1281~2

잎과 꽃이 좋은 최고의 관목소재
라인 혹은 독립으로도 최고!!

삼색조팝, 황금조팝

1. 아름다운 잎과 꽃이 잘 어울리는 조팝
2. 공원, 도로변, 골포장, 등에 화양무늬나 철쭉대용으로 활용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3. 생육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나다.



황금조팝



삼색조팝



조팝 매직캐트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골프장, 아파트, 도로가의 새로운 경관연출

2008년에도 변함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법면 3.4호"



파인벨러 C.C

특 성

- ① 아생화 26종이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 ② 일년생과 다년생이 적절히 혼합되어 첫째에는 일년생위주로 꽃을 피우면서 첫째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 ③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경관과 아름다운 안정된 식생을 유지한다.
- ④ 연중 시공이 가능하며 유사품과의 구별을 위해 무늬질경이를 혼합하였다.

사 용 량

- 파종량(㎡) : 10g
- 파종 시기 : 연중가능
- 파종 방법 : 면 정리후 기계분사파종
상황에 따라서 손파종도 가능



이천연주소



엑스월드 C.C



이천연주소



울산 태화강 둔지 법면



배어크리크 C.C



인정건설 아파트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사원모집 안내

우리꽃-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을지로196-82

모집부문	모집인원	학 령	자격요건
영 업	1 명	초대졸이상	
디자인	1 명	초대졸이상	

우리꽃-이천연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우리꽃 이천연주소

모집부문	모집인원	학 령	자격요건
생산관리	3 명	고졸이상	
연구 원	1 명	초대졸이상	

※ 인사담당 : 02-3412-1281 (Fax, 02-3412-1283)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